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東友

2면

뉴스A 시청률 5% 돌파...
새해에도 상승세 이어간다

3면

동아 '퀄리티 저널리즘' 보여준 히어로콘텐츠...
'킬러 팩트'로 더 강력해진다

4면

2024년 서울마라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기본과 현장을 토대로 DAMG의 중요한 가치 새롭게 세우는 2024년 돼야”

동아미디어그룹 스타트업 2024 사흘간 개최...김재호 회장, 기본과 현장 중요성 강조

1일자 • DAMG



2일자 • 동아일보



3일자 • 채널A



1월 23~25일 열린 동아미디어그룹 스타트업 2024 모습. 사흘 간의 스타트업에서 동아미디어그룹 계열사 대표 및 동아일보, 채널A 실·국·본부장들이 지난해 실적과 올해 경영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편집국 사진부 양희성 송은석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기본을 지키며 현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분명한 1등 콘텐츠와 서비스를 만드는 동아미디어그룹이 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다시, 달리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은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열린 ‘스타트업 2024’에서 올해 3대 경영방침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은 “올해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새롭게 선택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선택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면서 2024년의 목표를 달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스타트업은 1월 23일 동아미디어그룹 계열사, 24일 동아일보, 25일 채널A 순으로 진행했다. 스타트업은 각 계열사 대표 및 실·국·본부장들이 참석해 전년 실적과 공유하고 3대 경영방침을 토대로 세운 새해 경영 목표를 발표하는 행사다. 스타트업이란 명칭은 창간 100주년인 2020년 ‘스타트업 정신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도입했다.

뉴스와 콘텐츠의 근원인 현장 속으로

이번 스타트업에서 동아일보 편집국은 취재 프린트 라인 강화를 통해 ‘현장 우선주의’ 제작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총선, 민생 등 핵심 분야에서 현장형 콘텐츠를 강화하고 내근 차장들의 현장 취재도 확대할 방침이다. 사건 발생 즉시 현장으로 향하는 신속 대응팀도 전 취재부서로 확대한다. 올해 4월 총선과 관련하여는 DX본부와 협업해 총선 특별 콘텐츠를 제작하고, 총선 후보 검증 콘텐츠도 10회 이상 제작할 계획이다. 편집국은 기존 동아 플랫폼에 없던 콘텐츠를 생산하는 ‘퍼스트 팬’ 사례를 연 5개 이상 발굴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실은 ‘불편부당 시시비비’에 입각해 총선 국면에서 정파적 관점이 아닌 국익의 관점으로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성을 강화한 ‘인사이트 르포’와 ‘현장 논점’ 등을 통해 상투적인 지적이나 원론적인 답이 아닌 현장 당사자들도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비판과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채널A 보도본부는 올해 ‘현장 카메라’ 등 현장성 콘텐츠를 주 7일 편성하고 ‘오픈 인터뷰’ 등 대면형 콘텐츠도 확대할 방침이다. 선거 국면에서 현장성과 심층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격전지에 방문하는 ‘더스팟 253기제’, 정치 이슈를 분석하는 ‘진짜 정치’ 등 코너도 신설한다. <경제시그널> 등 신규 디지털콘텐츠를 더해

디지털 보도 분야 강자의 위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신설된 DX본부는 ‘데이터 탐구를 통한 전문성, 1등 콘텐츠를 위한 실행력, 효율적 분배를 통한 성취’로 디지털 영역에서의 탁월함을 갖춰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DX본부는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서포팅 크루 운영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보도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채널A 라이브 스트리밍을 더욱 확대하는 등 타 실·국·본부와의 디지털 협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다양한 신규 콘텐츠로 콘텐츠 유니버스 확장

채널A는 올해 동아미디어그룹의 콘텐츠 유니버스를 확장할 다채롭고 탁월한 콘텐츠 라인업을 선보였다. 스튜디오E는 레귤러와 시즌제 프로그램 등 신규 콘텐츠 7편을 제작할 계획이다. <강철부대> 등 기존 IP를 더욱 강화할 후속 시즌제 프로그램부터 신규 교양과 연애 예능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스튜디오D는 올해 2편 이상의 드라마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브랜드 프로그램의 제작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PD들의 BD(Business Director)화로 시장친화적인 채널로 포지셔닝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주니어

PD들의 성장 기회 부여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해 10분 내외의 4부작 솜폼 드라마도 연 2개 이상 제작할 계획이다.

각 계열사도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제시했다. 동아사이언스는 올해 어린이과학동아 창간 20주년을 맞아 어린이 우주인 선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선발된 어린이에게는 미국 NASA 휴스턴 우주센터 방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포츠동아는 올해 말 K-팝과 K-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시사식 ‘D-어워즈’를 준비 중이다. 스포츠엑스컴은 서울마라톤과 서울달리기 등 주요 대회들에 다양한 이벤트를 추가해 MZ세대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선사하는 대회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올해 스타트업 개최 기간 동안 김 회장은 ‘기본과 현장’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기본과 현장을 토대로 성공의 DNA를 갖춰 동아미디어그룹의 중요한 가치를 새롭게 세우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올해 각자의 위치에서 만든 1등 콘텐츠와 서비스로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발표한 계획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A 시청률 5% 돌파...새해에도 상승세 이어간다

<1월 25일 <뉴스A> 시청률 5.215%>

3.371%

2023년 1월

지난 1년간 <뉴스A> 월별 평균 가구시청률 추이

4.053%

2024년 1월



정치시그널
노은지

뉴스A LIVE
이용환

뉴스A
동정민

뉴스A
홍유라

주말 뉴스A
김은수

강력한 4팀
구자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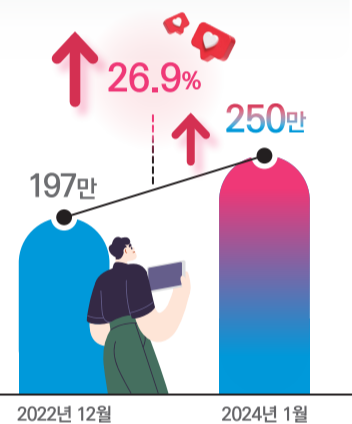
돌직구쇼
김진

뉴스 TOP10
김종석

'채널A 뉴스' 유튜브 구독자 수

단위: 명

'뉴스 TOP10' 109만
'김진의 돌직구쇼' 55.6만



"여기에도 왔어요?"

채널A 기자들이 사건 현장에서 취재원으로 부터 많이 듣는 말이다. 주요 사건은 물론, 아무리 사소한 팩트라 하더라도 채널A 기자는 달려가 직접 눈과 귀로 확인한다. <뉴스A>에는 팩트와 현장이 빠곡하게 담겨있다. 타사 기자들은 뒤늦게 "거기에도 갔어?"라고 묻는다. '취재 과정이 고단했겠다'고 우려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부러움이다.

이렇게 만드는 <뉴스A>에 시청자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던 주중 평균 시청률 추이는 지난해 11월부터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7월 2.744%였던 전국 유료가구 시청률은 올해 1월 4.053%로, 수도권은 지난해 7월 2.389%에서 올해 1월

3.614%로 올랐다. 기본에 충실한 취재로 만들어낸 채널A만의 콘텐츠, 생동하는 현장 영상이 시청자의 공감을 얻은 것이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이 발생한 1월 25일도 마찬가지였다. <뉴스A> 방송을 1시간 앞둔 오후 6시 큐시트가 출렁였다. 톱뉴스가 바뀌었고 이준성 최재원 송진섭 취재기자는 영상취재기자와 함께 피습 현장과 법원이 체포돼 조사받고 있는 강남경찰서와 배의원이 입원한 순천향병원으로 각각 출발했다. 시시각각 들어오는 소식을 듣고 송찬욱 정치부 차장은 <아는기자> 출연을 위해 오픈 스튜디오로 뛰었다. PD부터 AD, 작가, 영상 편집기까지 보도본부 전체가 톱뉴스를 향해 달려가던 순간 <뉴스A>가 시작됐다. 동시간대 타 방송사와는 비교가 불가한 콘텐츠와

신속함으로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결과는 전국 시청률 5.215%, 수도권 시청률 4.707%로 종합편성채널 1위. 전국 시청률은 지상파 포함 방송사 2위로 올랐다. 그동안 축적해 온 뉴스 제작 노하우가 빛을 발했다.

주말이라고 다를 건 없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제3지대 움직임을 비중 있게 보도한 1월 28일 <주말 뉴스A>는 전국 시청률 3.801%, 수도권 시청률 3.237%로 종합편성채널 1위를 기록했다.

올해 <뉴스A>는 주목해야 할 현장을 심층취재 보도하는 <현장카메라>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국회의원 선거의 생생한 현장을 담은 <마크맨>, 거짓 정보는 무엇이 고 진짜 뉴스는 무엇인지 명쾌하게 알리는 <진짜정치>와 <체크맨>을 신설했다. 뉴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물론, 온전히 시청자의 눈으로 제작한 뉴스들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다.

채널A 뉴스는 디지털 영역에서도 선전 중이다. 새해 시작과 함께 <뉴스A> 콘텐츠의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238만 회로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동정민 앵커가 진행하는 디지털 전용 콘텐츠 <동영과 뉴스터디> 총 조회수는 6780만 회를 넘겼다.

채널A 뉴스 유튜브 구독자 수는 1월 10일 250만 명을 넘어섬에 1년 만에 26.9% 상승했다. 이런 추세라면 방송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뉴스A>가 1위 자리에 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도본부 편집1부 배혜림

탐정들의 진짜 세계를 파헤치는 <탐정들의 영업비밀>

생활밀착형 탐정 실화극으로 차별화된 재미 선보여



가수 데프콘(오른쪽)과 배우 유인나(가운데), 웹툰작가 김풍이 MC를 맡았다.

1월 29일 월요일 오후 9시 30분 채널A 새 예능 <탐정들의 영업비밀>이 첫 방송됐다. 2020년 탐정 합법화 이후 등장한 직업 탐정의 실제 세계를 다루는 생활밀착형 실화극 토크쇼로, 다른 예능에서 볼 수 없던 차별화된 재미를 선보였다.

<탐정들의 영업비밀>은 경찰과 사법 영역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불륜, 학교폭력, 스토킹, 실종, 기층 등 생활 밀착형 사건과 범죄를 직업 탐정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탐정들의 실제 노하우와 증거 수집 팀이 낱알이 공개된다. 100% 실화 사건을 생생하게 재현해 몰입감을 높였다. 냉철한 이미지와는 달리 공감 능력과

유머를 겸비한 탐정들의 친숙한 모습도 관전 포인트이다.

관찰 예능 전문의 입담꾼 데프콘과 공감 요정 유인나, 시청자의 궁금증을 바로 캐치하는 김풍까지 세 MC는 찰떡같은 케미를 선보이며 시청자의 입장에서 함께 분노하고 사건을 들여다본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예능에서 탐정을 보게 되다니!', '같이 탐정된 기분', '앞으로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지 궁금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탐정들의 영업비밀>은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된다.

편성전략본부 C-밸류업팀 정수민

더 큰 재미 온다...100회 맞은 <신랑수업>

형탁·사야 커플의 진정성 담은 이야기로 반전 만들어



<신랑수업> 100회 방송 모습과 메인 연출을 맡은 임정규 스튜디오E PD

<신랑수업>이 1월 31일 방송 100회를 맞았다. 2022년 1월 첫 방송 이후 회를 거듭할수록 출연자들의 케미가 빛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파일럿으로 시작해 정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100회를 맞이까지 <신랑수업>의 연출을 맡은 임정규 PD로부터 소감을 들어봤다.

<신랑수업>의 메인 PD로서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처음 6회 파일럿으로 <신랑수업>을 시작했을 때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그런데 어느덧 100회가 되었다니 정말 기쁘다. 제작진을 믿어

주고 끌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처음 기획 당시 상상했던 <신랑수업>과 100회를 맞은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어떤 거창한 아이디어에서 <신랑수업>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신부수업은 있는데 왜 신랑수업은 없지?'라는 사소한 궁금증에서 시작됐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 과정에 있는 예비신랑들의 이야기를 꾸밈없이 전하고 싶었다. 그렇다고 <신랑수업>이 결혼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다만,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결혼이라

는 전환점에서 다양한 순간에 놓인 예비신랑들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대를 만들고 싶었다. <신랑수업>이 완벽한 해답은 아니더라도 함께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만족한다.

100회까지 달려오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100회를 맞이까지 참 버라이어티했다. 시청률 하락기도 있었다. 제작진으로서 프로그램 정체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심형탁·사야 커플의 진정성을 담은 이야기로 돌파구를 만들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공감을 얻으며 <신랑수업>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형탁 서울 결혼식'편으로 시청률 부진을 씻고 최고 시청률 3.3%(2023년 9월 13일, 81회)를 경신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살짝 공개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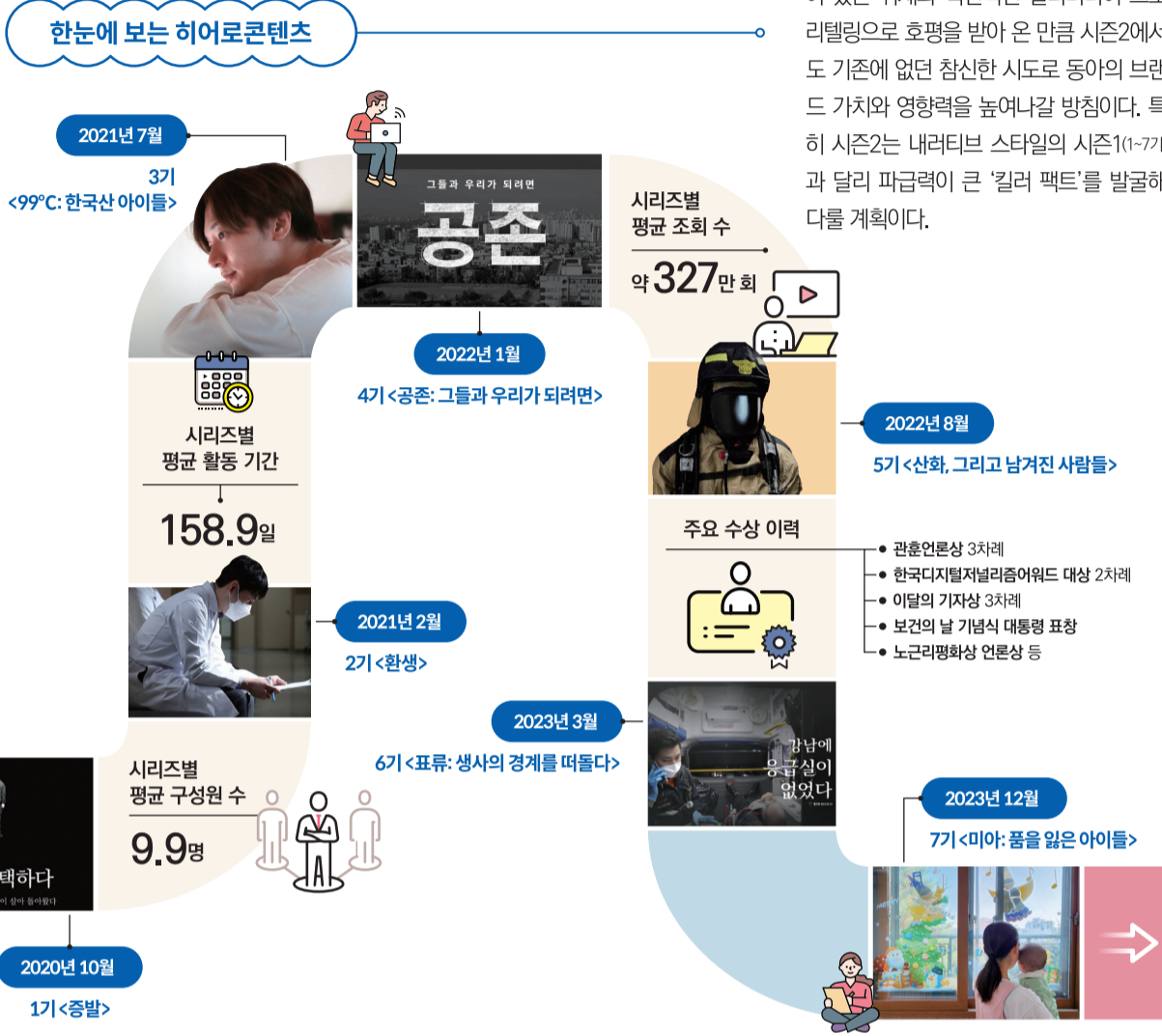
달달한 '쌈'을 타기 시작한 동완·윤아 커플이 실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될지 앞으로 방송에서 볼 수 있다. 형탁·사야 커플의 2세 준비기도 보여드릴 예정이다. <신랑수업>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때론 울고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는 <신랑수업>은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된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정하니

동아 '퀄리티 저널리즘' 보여준 히어로콘텐츠... '킬러 팩트'로 더 강력해진다

히어로 스퀘드-DX본부 협업으로 인터랙티브도 업그레이드... 히어로팀 제작 과정 다룬 장편 다큐도 준비



동아일보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은 히어로콘텐츠가 2024년 시즌2로 업그레이드된다. 3년간의 히어로콘텐츠 시즌1이 깊이 있는 취재와 혁신적인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으로 호평을 받아 온 만큼 시즌2에서도 기존에 없던 참신한 시도로 동아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즌2는 내러티브 스타일의 시즌1(1~7기)과 달리 파급력이 큰 '킬러 팩트'를 발굴해 다룰 계획이다.

동아의 디지털 혁신 이끈 히어로콘텐츠

동아일보는 창간 100주년을 맞아 뉴센 테니얼본부에서 제작한 '레거시플러스' 보고서 토대로 2020년 5월 히어로콘텐츠팀을 출범했다. 당시 히어로팀은 '기존 출입처 취재 방식에서는 하기 어려웠던 깊이 있는 취재'와 '다양하고 참신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독자들이 더 몰입해 읽을 수 있는 기사 제작'이라는 2개의 큰 목표를 세웠다. 히어로콘텐츠의 다양한 실험은 자연스럽게 동아일보 디지털 혁신의 원동력이 됐다.

2020년 1기 <증발>을 시작으로 한 해 평균 2개 시리즈의 히어로콘텐츠가 제작됐다. 7기 <미아>에 이르기까지 매 기수 별 10명 가까운 취재기자, 사진기자, 그래픽기자, 기획자, 뉴스로 디벨로퍼(ND), UX·UI 디자이너 등이 함께 작업했다. 중보 참여를 제외하고 1~7기 히어로팀에 참여한 인원만 46명이다. 1~7기 기수별 활동 기간은 약 158.9일. 하나의 주제를 5개월 넘게 심층 취재해 그 결과물을 5회 안팎의 지면 기사와 다수의 인터랙티브 기사로 다뤘다. 7기 팀에는 보도본부 기자도 처음으로 참여해 3개 방송 리포트를 별도로 제작했다.

기존과 차별화된 히어로콘텐츠의 보도에 국내외 호평도 이어졌다. 히어로팀은 출범 이후 3년 연속 관훈언론상을 받았고, 이달의 기자상과 한국디지털저널리즘어워드 대상 등을 여러 차례 수상했다. 지난해 세계적인 미디어 연구기관인 영국 로이터연구소는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의 성과를 다룬 기

사를 통해 "히어로팀은 마감의 제약 없이 않고 디지털 탐사보도를 했고, 이는 종이신문 중심의 뉴스로 문화를 바꾸기 위한 시도"라고 소개했다.

시즌2, '킬러 팩트'로 이전 시즌과 차별화

시즌1이 강조했던 지향점은 '작품성'이다. 특히 스토리텔링과 디지털 제작 혁신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제를 선정했다. 2기 <환상>(장기 기획), 5기 <산화>(제목 공무원 순직) 등 역대 시리즈들은 깊이 있는 사례 취재와 참신한 제작 기법으로 기존 기사와의 차별화에 성공했다.

시즌2는 파급력이 큰 팩트를 발굴하거나 정책적 대안이 뚜렷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소재 위주로 다룰 계획이다. 1월 활동에 들어간 8기 팀(김호경 김소영 김태연 기자 등)은 6월경 시즌2의 첫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디지털 제작 과정의 혁신도 계속된다. DX본부는 시즌2를 맞아 히어로팀의 취재 현장과 아이템을 생생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3D 인터랙티브 등 새로운 디지털 차원의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히어로콘텐츠 제작 과정 등을 다룬 장편 다큐멘터리 제작도 구상 중이다. 앞서 DX본부는 6기 <표류>의 주제인 응급환자 표류 실태를 다룬 미니 다큐멘터리 2편을 제작해 1월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권오혁

一民 김상만 선생 30주기 추모식

각계 인사 140여 명 참석... '언론 자유수호-인재양성' 업적 기려



1월 26일 일민 김상만 선생의 30주기 추모식이 열린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선영에서 추모객들이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고인의 가족과 친지를 비롯해 각계 인사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동아일보 사장과 회장,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을 지낸 일민 김상만(一民 金相萬) 선생의 30주기 추모식이 1월 26일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선영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추모 묵념에 이어 고인 약력 보고와 추모사 낭독, 분향 및 헌화 순서로 진행됐다. 일민 선생은 동아일보를 창간한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 선생의 장남으로, 1949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1994년 타계 때까지 언론 자유 수호에 힘을 쏟았다. 또 음악, 무용, 국악 콩쿠르와 문학, 연극, 미술 등의 분야에서 인재양성 사업을 활발히 펼쳐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최명호 동우회장은 추모사에서 "(선생이) 벼를 깎아 펜을 만들고 피를 잉크 삼아 신문문을 만드셨던 부친의 유지를 받들면서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은 정론의 역할을 이끌어 오셨다"며 "공익을 우선하시면서 겸양과 인고의 헌신적 자세로 일관하신 언론과 교육계의 큰 어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선생의 집무실은 밝지 않았고 봉투는 연필로 여러 번 썼다가 지운 흔적이 있었다. 겨울철 가회동 집은 늘 추웠다"며 "근검 절약을 몸소 보여주셨던 모습이었다"고 회고했다. 임재정 동아일보 사장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언론인으로, 인

재 양성에 혼신을 쏟으셨던 교육자로서 보여주시 선생의 단아한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앞길을 밝혀주는 횡보가 되고 있다"고 고인을 기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고인의 장손인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 김태영 일민미술관장을 비롯한 유족과 이진강 인촌기념회 이사장, 남시욱 화정평화재단 이사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김진성 고려사이버대 총장, 김병건 동아꿈나무재단 이사장 등 각계 인사 140여 명이 참석했다.

편집국 문화부 사지원

동아 기사를 검색하는 더 똑똑한 방법, '에스크동아'

편집국 기자 대상 인공지능 검색 베타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 '에스크동아' 예시 화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연관이 있는 기사는 3번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행복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1월 23일 오픈한 '에스크동아'(AskDonga)에 질문을 입력하자 5초도 지나지 않아 챗봇의 대답이 돌아온다. 에스크동아는 DX본부와 동아닷컴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alpha.donga.com/news/AskDonga)다. 대화하듯 질문을 입력하면 동아일보와 동아미디어그룹 계열사의 기사 중 가장 관련도가 높은 기사 3개를 추천해주고 주요 내용을 요약해준다.

에스크동아는 정보 검색의 편의성이 높다. 단순 단어 검색과 달리 '2020년

○○전자의 실적'처럼 구체적인 질문도 가능하다. 정확한 팩트만 담은 동아미디어그룹의 기사만을 추천해준다는 점에서 신뢰성도 갖췄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수치가 높다고 하네.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라는 질문을 입력하면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기사 등을 인용하며 답을 해준다.

에스크동아는 현재 편집국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정식 버전이 되면 공개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다. 생성형 AI의 특성상 에스크동아가 더 똑똑해지려면 많은 질문 데이터가 필요하다. 기자들의 송곳 같은 질문으로 에스크동아가 더욱 똑똑해질 것 기대한다.

DX본부 전략팀 서영빈



SEOUL 2024 MARATHON since 1931

동우 2024. 2. 16. 금

2024년 서울마라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도심을 달리는 마라톤 축제' 3월 17일 개최...70개국 3만 8000여 명 참가 신청

새로운 봄의 시작을 가르며 달리는 '2024 서울마라톤 겸 제94회 동아마라톤대회'가 3월 17일 개최된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8000여 명이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대회로 치러진다.

지난해 9월 대회 접수신청이 시작된 뒤 단시간 내에 풀코스 1만 8000명, 10km 2만 명을 채우며 러너들의 뜨거운 관심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특히 코로나19로 저조해진 외국인 참가자도 올해에는 70개국 3000여 명이 신청하며 이전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했다. 올해도 서울마라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육상연맹(World Athletics)의 플래티넘 라벨과 세계 육상 문화유산(World Athletics Heritage Plaque) 타이틀을 가진

대회는 전 세계에서 서울마라톤과 보스턴 마라톤대회 두 개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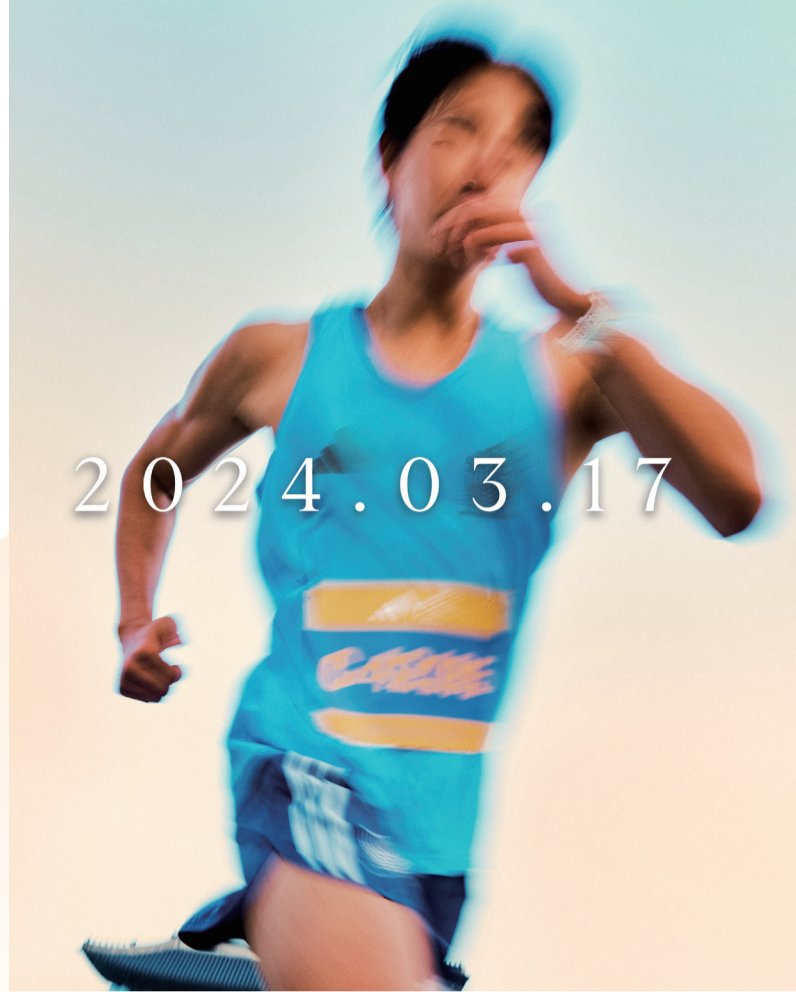
세계적인 러닝 붐은 서울마라톤의 참가자 구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서울마라톤 10km 부문에 참가하는 인원 중 2040세대가 90%에 육박하며 이전보다 한층 젊어졌다. 러너들의 궁극적 목표인 풀코스에도 젊은 참가자들의 강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2040세대의 풀코스 참가자 비율은 지난해 58%에서 올해 62%로 높아졌다. 이는 러닝이 한시적 트렌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을 보여준다. 풀코스 참가자들은 서울의 중심부인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하여 을지로, 청계천, 종로 등 도심 곳곳을 달린 뒤, 서울숲과 잠실대교를 거쳐 잠실종합운동장으로 끝나는

게 된다. 10km 참가자들은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하여 잠실 및 송파 일대를 돌아 다시 잠실주경기장으로 들어온다.

올해는 달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직접 서울마라톤을 위하여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마쿠루'라는 이름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동마쿠루원들은 대회 당일 물품보관소, 급수대 및 간식배부처 등 장소에서 대회 전반에 걸쳐 참가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활동할 예정이다.

동마쿠루는 서울마라톤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역들로서 열정적인 응원으로 대회 분위기를 뜨겁게 달궂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회 전날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즐길 수 있는 엑스포가 개최된다.



엑스포에서는 아디다스, 포카리스웨트, 아미노바이탈, 오토사이드, 100% 고글, 삭스, 국순당 등 여러 협찬 및 협력업체들의 부스가 마련돼 러닝과 관련된 여러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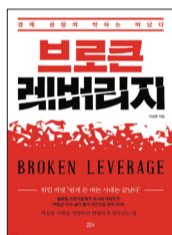
를 선보이며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사업본부 스포츠기획팀 신강혁

신간소개

<브로큰 레버리지>

편집국 이상훈 기자



도쿄 특파원인 편집국 이상훈 기자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한국과 일본 경제를 꼼꼼히 비교 분석한 <브로큰 레버리지>를 출간했다. 맹목적 상승론이나 폭락론을 경계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통해 한국의 경제적 불황이 끝나지 않는다고 예측했고, 최근 일본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한국의 불황 탈출을 위한 실마리를 찾았다.

DAMG 수상소식

편집국 양희성 기자, 이달의 보도사진상 최우수상



양희성 기자



양희성 기자의 '물에 놓는 게 즐겁다'

한국사진기자협회는 1월 22일 제252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포토레이트 부문 최우수상에 편집국 사진부 양희성 기자의 '물에

놓는 게 즐겁다'를 선정했다. 양 기자는 한국 수영 배영의 간판 이주호 선수가 물에 뜬 채 누워 웃고 있는 장면을 포착했다.

편집국 박형기 기자, 한국보도사진전 우수상



박형기 기자



박형기 기자의 '수마에 삼켜진 강내면'

한국사진기자협회는 2월 5일 제60회 한국보도사진전 뉴스 부문 우수상에 편집국 사진부 박형기 기자의 '수마에 삼켜진 강내

면'을 선정했다. 박 기자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충북청주시 강내면 일대가 물에 잠긴 장면을 담았다.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 ① 입사 후 포부
- ② 요즘 관심사
- ③ 최종 직장



서창우 / 채널A 보도본부

- ① 하루 빨리 적응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② 어느 곳에 부리를 내려야 잘 살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또 그간 즐겨했다 잠시 놓고 있었던 축구나 야구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 ③ MBC경남



이상원 / 채널A 보도본부

- ① 채널A는 늘 현장에 있었습니다. 같은 곳에 있어도 다른 시선으로 차별화된 기사를 씁니다. 작은 디테일의 차이로 채널A만의 독보적인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 ② '건강하게 일하기'입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람의 관계에서도 건강할 때 가장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 ③ 이태일리



이새하 / 채널A 보도본부

- ① 2015년 입사해 사회부와 금융부, 산업부, 경제부에서 기자생활을 했습니다. 경제지에서 경제 분야를 주로 취재하다가 다시 사회부로 돌아와 감회가 새롭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부지런히 현장을 누비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②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집사이자, 20종 넘는 식물을 가꾸는 식집사입니다. 동물과 풀, 나무를 좋아합니다. 북한산 밑에 살며 동네 산책을 즐겨합니다. 이것저것 보고 먹고 마시는 것도 좋아합니다.
- ③ 매일경제신문



정성원 / 채널A 보도본부

- ① 지난 4년여간 이전 회사에서 취재 역량과 정책을 보는 안목을 키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시민들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설명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대안을 발굴하고 싶습니다.
- ② 방송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오면서 방송 리포트와 영상 구성, 제작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빠르게 적응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③ 뉴스스



정연주 / 채널A 보도본부

- ① 단어 하나의 힘을 늘 생각하겠습니다. 매일 배우고 나아가겠습니다.
- ② 콘서트를 즐기거나 조용한 산과 바다로 여행을 갑니다. 마음 정화에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는 네팔에서 만든 싱잉볼을 구매했습니다.
- ③ 뉴스1



김도연 / 채널A 편성전략본부

- ① 편성 PD로 입사하게 된 김도연입니다. 채널A의 보석 같은 프로그램이 더 반짝일 수 있도록 최선의 편성 전략을 고민하겠습니다.
- ② 취업 준비 때문에 미루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사내에 스포츠 동호회가 있다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송수하 / 채널A 편성전략본부

- ① 너무나도 애정하던 채널A에 입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신 만큼, 채널A 콘텐츠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의 마음가짐 그대로 채널A와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습니다. :)
- ② 저의 새해 목표 중 하나는 꾸준히 일상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영상이나 글을 통해 하루하루를 꾸준히 기록하고 싶습니다. 채널A와 함께 할 앞으로의 시간도 소중하게 기록하겠습니다!



이세은 / 채널A 편성전략본부

- ① 채널A의 치트키가 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믿을 만한, 통찰력 있는 PD가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날까지 많이 배우고 열심히 성장하겠습니다.
- ② 코어는 탄탄, 자세는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어 최근 운동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클라이밍, 테니스 등 하나씩 경험해보며 제게 맞는 운동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정은진 / 채널A 편성전략본부

- ① 채널A 콘텐츠가 더 많은 시청자에게 잘 닿을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도전하는 편성PD가 되겠습니다!
- ② 이사를 고민 중입니다. 일상을 잘 보낼 수 있는 동네를 찾고 있습니다. :D